

# 2016 동물보호문화축제를 다녀와서...



김순재  
대한수의사회 고문



2016 제3회 동물보호문화축제가 10월 30일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동물보호문화축제에는 약 90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으며, 일반시민의 호응에 힘입어 사회 각 계 인사들의 참여 및 격려가 이어졌다.

행사를 주최한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님과 행사를 주관한 대한수의사회 김옥경 회장님이 직접 방문하였으며, 이인영, 박홍근, 남인순, 한정애, 유은혜, 이정미 의원님 등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국회의원들 또한 직접 참석하여 2016 동물보호문화축제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었다.

서울시에서도 지방 일정으로 참석 못한 박원순 시장을 대신하여 시민건강국의 나백주 국장이 참석하여 후원 기관을 대표하였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400만가구 1천만 인구가 반려동물 가족으로 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수의사들의 사회적 소명”이라며 “대한수의사회와 전국 1만 8천여명의 수의사들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강자와 약자가 공존해야 하듯, 사람과 동물이 공존해야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다”

며 “올해 7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대책 발표하고 현재 후속대책 준비 중인데, 여러 정책적 보완과 더불어 반려동물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높은 도덕의식과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국회의원은 “3년째 계속 참가하면서 사람과 동물과 자연이 하나라는 ‘사자동일체’를 계속 강조해왔다.

올해는 여기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다”며 “올해가 동물을 먹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공존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홍근·남인순·한정애·유은혜 의원은 “지난해 제2회 동물보호문화축제에 참가해보고 동물보호 관련 정책을 전달하는 단체가 국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동물복지국회포럼을 만들었다.

현재 52명의 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며 “제도가 뒷받침될 때 의식과 문화도 함께 간다고 생각한다. 포럼에서 동물보호단체와 수의계의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 수의사단체와 많은 동물보호단체의 협력하는 모습이 무척 보기 좋았으며, 이러한 행사가 수의사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행사를 거듭하면서 행사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의 반

려동물문화 역시 점점 성숙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대부분의 동물보호자가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고 행사장에 입장하였으며, 반려동물의 분노 처리 역시 당연하게 직접 하는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다. 반려동물문화가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 수의사들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최근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문제로 수의계가 홍역을 앓고 있다. 생산자단체나 약사회 등의 반대로 시행령 개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수의사 회원들의 염원과 동물보호단체, 일반 반려동물가족들의 호응에 힘입어 어렵게나마 관련

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모쪼록 좋은 결과가 나와 반려동물의 문화가 한층 성숙해지고 수의사가 반려동물복지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동물보호문화축제 개최에 힘써준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님, 대한수의사회 김옥경 회장님, 이인영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 유은혜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번 동물보호문화축제 개최



에 힘써준 대한수의사회 관계자 및 동물보호문화축제에 참석해주신 반려동물 가족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동물보호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반려동물문화가 성숙하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꼭 부연한다면 금번 동물보호문화축제를 관람하고 크게 감탄한 것은 수의사의 존재감을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님을 모시고 여러 국회의원님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입증하여 보여드렸다는 것이 흐뭇하게 생각된다.

한마디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동물보호문화축제를 어떻게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창조적인 발상을 했는지 진심으로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대한수의사회 회장님이신 김옥경 박사님의 재능과 능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